

# D-1 재보선, 여야 막판 난타전 가열

## 새누리, 노원 병 지원사격 집중...안 “정치공세” 맞붙

## 민주, 새정부 ‘복지공약 후퇴’ 부각 막판 뒤집기 총력

4·24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여야는 난타전을 방불케 하는 공방을 주고 받았다. 또 여야 후보들은 저인망식 방식으로 지역구를 훑으면서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힐 있는 여당후보론’을 부각하며 ‘안철수 때리기’에 치중했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초기 난맥상을 부각시키며 ‘정권경종론’으로 맞섰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새누

리당의 집중포화를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3곳 중 유일한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서울 노원병의 허준영 후보 지원에 집중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을 거론하며 “노원구처럼 현안이 많은 지역에서 과연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기 따라 날아와 대안 없이 변화만 외치는 후보가 언젠가 또 다른 인기를 쫓아 떠나면 주민은 버림받고 상처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중앙당 차원 지원사격에 대해 “정치공세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여야 정치권을 향해 “민생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엉뚱한 것으로 싸우고, 싸우다가도 국민의 어떤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뿔뿔 뿜치는 일종의 적대적인 공생구조”라고 짚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낸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서 열세인 상황이나, 정부의 ‘인사부실’과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뒤집기에 온 힘을 쏟았다.

김영록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불통 정치, 인사 참사, 국정원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현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봉사할 수 있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가세했다.

여야 후보들은 지역구를 훑으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담방울을 흘렸다.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노원병에서 허 후보는 이날부터 48시간 총력유세에 들어갔으며 안 후보는 이날 5차례의 골목유세와 퇴근 토크 등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집중하며 하루 동안 12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모든 운동원 현장투입’으로 종반 전략에 매진했고 민주당 김비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감시간까지 ‘48시간 사즉생 릴레이 유세’에 들어갔다.

부여·청도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는 “충청의 큰 인물로 키워달라”고, 민주당 황인석 후보와 통합진보당 천성인 후보는 “농촌을 살릴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며 지역을 누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25일~26일 새 내각 상대 첫 대정부 질문

## 박지원·김성곤·김동철·이낙연

## 野 ‘공격수’로 나서 ‘실정’ 맹공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상대로 첫 대정부질문을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첫 날인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둘째 날인 26일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각각 실시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고위직 인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두루 도마 위에 올려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4·24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과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박지원·김성곤·김동철·진선미 의원을 내보낼 계획이다. 26일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이낙연·김현미·전순옥·윤후덕 의원 등이 ‘공격수’로 나선다.

새정부 출범 초기여서 ‘실정’을 부각시킬 소재가 많지는 않았음에도 대

정부질문 지원자 경쟁이 치열했던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의원이 4명이나 포함된 박근혜정부의 난맥상을 들춰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북정책과 인사 난맥상,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주로 짚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2개월이 성공적인지, 실패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가능한 한 빨리 제도를 수정해 남은 58개월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남북문제와 인사, 민생경제 등의 국정방향에서 혼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과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에게 불리한 정책을 집중 파고들 생각”이라며 “특히 창조경제에 매몰돼서 소외받는 농어촌이 없도록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새정부 들어 두 달 만에 하는 첫 대정부질문임을 감안해 일방적 때리기보다는 적당한 수위 조절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두환 피해자’

### 보상 법률안 의결

#### 국방위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군부의 반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 ‘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법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와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결의안은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서다 사망한 김중령에 대한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운 의원은 “12·12는 군사 반란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고, 전두환 장군과 쿠데타 일꾼이 처벌받았다”면서 “그렇다면 고 김중령은 단순히 상관 신변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다 이 땅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운 의원은 “12·12는 군사 반란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고, 전두환 장군과 쿠데타 일꾼이 처벌받았다”면서 “그렇다면 고 김중령은 단순히 상관 신변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다 이 땅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민주 시도당위원장 국립 5·18 묘지 참배 신임 민주통합당 임내선 광주시당위원장과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이 22일 오전 시·도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호남 유일 후보 유성엽 지도부 진입 가능할까

### 민주 전대 최고위원 도전...광주·전남북 대의원·당원 적극 지지 호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 7명 중 유일하게 호남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유성엽(전북 정읍·사진) 의원의 지도부 진입 여부가 주목된다. 유 후보는 “유일한 호남 후보”를 내세우며 광주와 전남·전북 대의원 및 당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유 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광주와 전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인용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고, 민주당도 없으며 민주주의도 없다”며 “호남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 유일한 호남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역설했다.

특히 유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자 중 전남에서 황주홍 의원이, 전북에

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황 의원이 초반에 탈락하는 불운을 겪었다”며 “제가 이제 유일한 호남 후보인데, 지도부 최고위원에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는 민주당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자극했다.

유 후보는 특히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대의



원과 당원들을 꼭 넓게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 유 후보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윤진숙 장관 업무보고 거부

###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진정어린 사과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자질논란으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윤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표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역대 의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오리러 헛웃음으로 인사청문회를

회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의 ‘국회 데뷔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윤 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정책적 비전 등을 제시한다면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김영록 간사는 “만일 내일 회의 개최 이전에 청와대나 장관의 특별한 의견표명이 있다면 들어보고 이후 태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 사공전 / 단열에이스카펫시공 2 단열에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합판시공 4 시공 후

**특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매 매**

→ 대 478㎡, 건1475㎡, 2004년 신축  
→ 6층건물, 엘리베이터 2대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분할매매 가능

**목포, 2호광장 사거리 구, 맹수 한의원 건물**

**임 매**

→ 6층건물  
→ 6층 고급주택, 옥상 광고탑  
→ 병/의원, 약국, 교회, 커피숍  
체인점, 편의점, 식당, 학원 등

상담문의 011-611-9525  
010-4667-9300

**부동산경매**

▶반토막 난 부동산! 지금이 찬스!  
▶노후 대책은 부동산 경매로!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  
▶단독/공동/소액투자 가능!  
▶낙찰물건 실전 사례 교육!  
▶1인1물건 추천

■강의기간 : 3개월, 주1회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저녁:7:30~9:30)  
토요일(오후:5:00~7:00)  
■강의장소 : 광주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강 의 료 : 개인 지도 1,100만원

**엘피엘/특수물건**

예약상담 H. 010-3605-5000  
**(주) 오 천 경 매**